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4. 10. 17.(목) 12:00
(지면) 2024. 10. 18.(금) 조간

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위험 요소 꼼꼼히 확인한다

- 최근 3년간(2021~2023년) 어린이·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점 79개소 점검

-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교통약자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, 경찰청,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최근 3년간(2021~2023년) 어린이·노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집중 점검한다.
- 어린이·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연평균 1만 3천여 건* 발생하고 있으며, 지난해에 발생한 교통사고 13,545건 중 13,029건(96%)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.
 - * 최근 3년간 : ('21년) 12,344건 → ('22년) 13,219건 → ('23년) 13,545건
- 이번 점검 대상은 총 79개소로,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다발지점(49개소) 뿐만 아니라 보호구역 외 교차로·전통시장 주변 등 교통사고 피해가 큰 곳 (30개소)도 선정했다.
- 행정안전부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은 10월 18일부터 31일 까지(2주간)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곳 21개소를 표본 점검한다.
 - ※ 각 지자체는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전수점검(58개소) 추진 중(10.14.~11.8.)
- ▲ 보도·보행공간, 보행신호 길이 등 도로 환경 요인, ▲ 방호울타리, 미끄럼 방지 등 교통안전 시설, ▲ 불법주정차·과속 등 운전자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.
- 점검을 통해 도출된 개선 사항은 자치단체에 안내해 신속히 조치하여, 유사사고 발생에 대비할 계획이다.

□ 한편, 정부는 지난해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점(29개소)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점(60개소)을 점검하고, 총 655건*의 개선 사항을 발굴·조치한 바 있다.

* 도로 환경 요인(303건), 교통안전시설 미비(217건), 운전자 법규 위반(135건)

□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“정부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위험 요소를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안전예방정책실 안전개선과	책임자	과 장	지용구 (044-205-4210)
		담당자	사무관	설재희 (044-205-4220)



□ 점검개요

- (기 간) '24. 10. 14. ~ 11. 8.(4주 간) ※ 중앙점검 : 10.18.~10.31. 중
- (대 상) 어린이·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점 79개소*
 - * 어린이 39개소(보호구역 內 36 / 外 3), 노인 40개소(보호구역 內 13 / 外 27)
- (방 법) 중앙 점검반(표본* 21)과 지자체 자체 점검반(전수 58)이 현장 확인 후 원인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
 - * 교통사고 위험도(EPDO)가 높은 곳 점검
- (점검반) 행정안전부, 교육부, 경찰청, 지자체, 도로교통공단 등 참여

□ 주요내용

- (현장 확인) 사고 발생 원인·피해현황 및 조치 경과 등 사고를 확인하고, 주변 도로 환경·안전시설·단속장비 등 시설 점검
- (문제점 분석·개선방안 마련) 현장 확인 사항을 바탕으로 시설·운영 등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
- (점검결과 환류) 점검에서 발굴된 개선 방안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 (지자체)하고, 추진 현황 점검(반기별)하여 동일 원인의 사고 재발 예방

□ 향후 계획

- 점검결과 통보(행안부→지자체) : 11월 중
- 지자체 세부 정비 계획 수립·제출(지자체→행안부) : 12월 중
 - ※ 단기 개선사항은 신속 개선 조치 완료

참고2 어린이·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점 점검 후 개선 사례

구분		당초	개선
도로환경 요인	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(부산)		
	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(서울)		
운전자 법규 위반	불법 주정차 단속 (서울)		
	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(제주)		
안전시설 미비	무단 횡단 방지 방호울타 리 설치 (서울)		